# 오리지널 새신자 교육

## (출13:1~1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리지널 새신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리지널 새신자 교육'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각 지역교회마다 전도에 공을 들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왜 시키느냐? 첫 번째는 기독교 진리의 개관의 윤곽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차원에서의 목적은 편안한 정착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하여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정착하고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도를 통해서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착시켜야 하므로 새신자 교육 책들은 교육, 양육에서 끝나지 않고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라는 제목의 책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목차의 항목이 무려 41개나 됩니다. 이 41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신자를 교육시키면 무슨 고시도 아니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신자를 위해서 요즘 지역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배려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교회 밖 세상에서 느껴지는 격차와 차별을 가능한 적게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 살던 사람이 큰 문화적 쇼크 없이 차별을 실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는 것으로 새신자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역자들의 기본자세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도, 새신자 교육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임하는 자세에 틀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려 200만 명의 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첫 번째 교육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이제 여호와 신앙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들어왔지만 사실 200만 명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상대하는 관계자로서 나타나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 초신자들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모태신앙인들이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사건 직후에는 200만 명 모두가 다 초신자 집단입니다.

초신자이자 새신자 집단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사건의 내막을 되풀이 하신 것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첫 번째로 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게서 나타나는 초태생인 모든 것, 짐승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맡긴다.’라고 하는데 ‘위탁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맡기는 것에 대한 나의 소원이 들어있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린다.’는 것은 여전히 내 것으로 갖고 있으면서 위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게서 떠나보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예속시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초신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교육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사건의 내막을 되풀이하심으로서 200만 명 초신자이고 새신자인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유월절 사건이 바로 선민 집단의 뿌리이고, 달리 말하면 공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뿌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많지만 그 가지들이 다 뿌리와 연결되어야만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가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뿌리의식을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뿌리가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의 내막은 이방인의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서 가장 소중한 내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서 떠나보내는 사건이 선민 됨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 교육되고 확인되어야 할 내용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있게 될 모든 초태생과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라는 확인을 하고 “예”라고 할 때에 공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가 공교회에 속한 지교회로서 존립합니다만 이름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그렇게 분산되어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지점할 때의 지(支)자를 써서 ‘영락지교회’라야 하고, ‘소망교회’는 ‘소망지교회’, ‘명성교회’는 ‘명성지교회’라야 합니다. 교단도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지회’라고 해야 하고, ‘대한감리지회’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나 ‘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교회나 회라는 말을 쉽게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공교회의 일원으로 사람을 정착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므로 공교회의 뿌리가 망각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공교회의 뿌리는 초태생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아닌 공교회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초태생을 바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꾸 새신자 교육에서 교회를 세상과 차별이 없는 공간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장자를 바쳐야 하고, 매 순간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결심이 서야 선민 집단으로 예속될 수 있는 것이고, 할례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죽지 않으면, 할례의 의미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태생, 장자라는 말이 꼭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꼭 내 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매 순간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그 순간마다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가 매 시간 소중한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느냐면 말씀드렸듯이 창22: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라고 하십니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점증법적 용법으로, 그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계속 마음에서 죽이고 내보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아내 사라를 버리고, 롯에게 땅을 양보해서 거처할 땅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맨 마지막에 약속한지 25년만인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독자도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12절에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셨고, 그 현장에서 두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손의 번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예언은 출애굽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선민이 성립된 것이고 이 뿌리는 지금까지 4,000년 동안을 땅에 묻혀서 선민공동체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태생은 '독자'라는 극한의 소중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가는 과정 중에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더 형통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더 증식시킬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 기대에 맞추어서 그 기대에 조그마한 걸림돌도 없기 위해 교회는 애를 쓰며 새신자 교육을 시키지만, 이것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뿌리로부터 끊어져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숫자도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직원과 대화 할 때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낮은 가격대로 내가 이득을 극대화시키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거래를 놓고 교회의 새신자가 되어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마음에 있는 사업의 거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당신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원하는 대로 성사되어서 기쁠 것을 마음에서 죽이고, 대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새신자 교육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눅14: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말은 다 초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들로 다가올 수 있는 후보군들입니다.
그리고 또 막10: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라고 이야기하시며 재산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내 마음에 중요한 것들로 등장하는 것들이고, 초태생으로서 내 마음에 첫 번째 관심이 되는 대상의 후보군들을 나열하신 것으로 그것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의 모든 초신자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의 후보군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 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민의 집단인 공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뿌리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나를 지지하지 않을 텐데. / 좀 시간을 두고 믿음을 갖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염려는 배려가 아니고 교만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겸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신자 교육의 내용을 그대로 쏟아 부으십니다.
자꾸 내가 중간에 끼어서 새신자들의 마음이 더 부드럽게 정착될 수 있기 위해 조작(Manipulation)을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전(Operation)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교만이고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모든 새신자에게는 “당신의 초태생인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눅14: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부모,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생애에서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나 목숨 외에도 인생의 순간순간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이고, 28절에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교회의 뿌리가 되는 유월절 사건의 내막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듯이 바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뿌리로 건재하고 있는 선민집단인 공교회로 연결을 시키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6: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첫 번째인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민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개념은 무작위(random)로 전도를 하여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있는 중에 익명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일 뿐,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회의 일원을 찾아내려고 하고 공교회의 지류인 지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가꾸어가려고 하니 이러한 공교회의 뿌리를 다 제거해버리고 마는 것으로 내 교회에 소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고백을 요약한 것으로, 첫 번째 “믿습니다.”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아버지이시고, 두 번째 “믿습니다.”의 대상은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 번째 “믿습니다.”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새신자가 들어올 때에 “당신의 매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이겠습니까?”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마음을 정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공교회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공교회의 뿌리로 초신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다짜고짜 “당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지금의 공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양상을 띠면서 발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이 어떤 교회는 망하고 어떤 교회는 대형교회(Mega church)가 되어서 사람이 바글거리는데, 전체 숫자로 보면 줄어가는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메가 처치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므로 목사가 스타 자리에 섭니다. 방송에 장 동건 씨 같은 일류스타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듯이 목사님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매 순간마다 내 마음에 첫 번째 관심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죽게 만들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지금의 살아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대로 기억하며 이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지교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설교를 잘 하고, 명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과 유월절 사건과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하꼬방 같은 개척교회에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말씀만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교회에서는 그 이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교회의 뿌리를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공교회에 속한 개인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이 아닌, 삶으로 나가서 매 순간마다 초태생인, 마음의 관심거리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모셔 들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공교회의 뿌리를 알고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하면서 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세상의 교회가 숫자적인 면에서도 평준화 될 날이 올 것이고, 메가 처치라는 기현상으로 거기에 갈 필요가 없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라고 해서 가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호화로운 빌딩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십자가 사건이 현재화되고 있고, 십자가 복음사건을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꺼내어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삭을 바친 사건이고 공교회의 뿌리이고, 이 뿌리에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도록 설교를 하고 있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언젠가 대형교회가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공교회라는 뿌리에 마음이 붙도록 매진하며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면 대형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개척한지 10년이 넘도록 성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4,000년간 내려온 뿌리가 무엇이 새롭겠습니까마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교회를 위한 지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의 내용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리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겠느냐? /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는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끊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지금 옆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모셔 들이는 할례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느

냐?"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나중에 선택되어질 사람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를 들이대는 것이고, 이 뿌리에 연결되어 오는 양분을 통해 열매 맺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새신자 교육이 모든 지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할까 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하는 배려의 모든 것이 근본을 들춰보면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냉혹해 보이는 말씀을 던지셨지만, 가장 겸손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서 공교회의 뿌리에 새신자들을 연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